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 산림청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총 12쪽
배포일자	2021. 12. 30.(목)	담당부서	산림복지정책과
담당과장	과장 이광호 (042-481-4210)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영 (042-481-1839)

2020년 산림휴양 · 복지 활동 조사 결과

- 2019년 대비 경험률은 하락, 만족도는 증가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민의 산림휴양·복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020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개요
- 조사항목 : 2020.1월 ~ 2020.12월 동안의 산림휴양·복지활동
- 조사대상 : 17개 시·도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 10,248명
-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수행처/주기 : 한국산림복지진흥원/매년

* 산림휴양·복지활동 : 산림(숲, 산, 공원, 도시숲 등) 또는 산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서 행해지는 휴식, 취미, 문화, 예술, 창작, 체육(운동·레포츠), 사회참여 등의 모든 활동

* 산림휴양·복지활동 유형 : 일상형(이동시간 포함 4시간 미만), 당일형(이동시간 포함 4시간 이상), 숙박형(최소 1박 2일의 일정으로 이동시간을 포함해 4시간 이상)

□ 2019년 대비 전 연령층에서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 하락

○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영향으로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은 2019년보다 소폭 하락**했으며(81.4% → 79.2%),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감소 영향으로 **15세~19세 이하 하락 폭**(76.5% → 68.3%)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 또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전년 대비 **경험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50대 이상에서는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림휴양 · 복지활동 경험률 비교 >

□ 산림휴양 · 복지활동 경험률 하락요인으로 코로나 19가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산림휴양 · 복지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사람이 많아 혼잡해서'**라는 응답이 2019년 대비 **8.6% 증가**하고, **'코로나 19로 외출을 자제해서** (13.8%)' 라는 응답이 **신규 발생**하는 등 코로나 19가 산림휴양 · 복지활동에 미친 영향이 통계에서도 확인되었다.

	흥미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바다 등 다른 여행지가 더 좋아서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해서	사람이 많아 혼잡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2019	53.9	57.3	23.0	16.1	-	5.1	6.8
2020	53.5	47.6	22.5	15.2	13.8	13.7	6.6

< 산림휴양 · 복지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 산림휴양 · 복지활동의 패턴은 비슷, 경험량은 감소, 만족도는 증가

○ **당일형** 산림휴양 · 복지활동은 2019년과 동일하게 **자연풍경 감상> 등산> 하이킹** 순으로 동일하나 **경험량**이 전년대비 **하락**

○ **숙박형** 산림휴양 · 복지활동은 2019년과 동일하게 **자연풍경 감상> 야영(캠핑)> 명소탐방** 순으로 동일하나 **경험량**이 전년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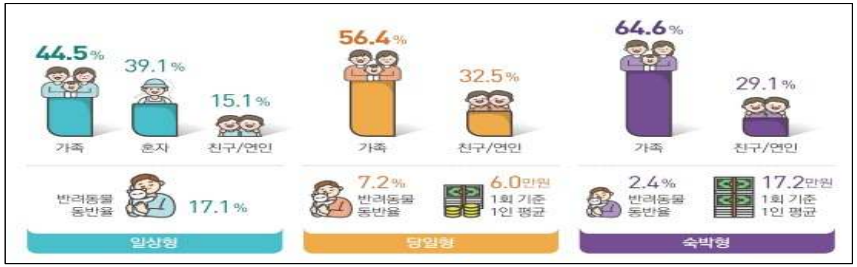
○ 산림휴양 · 복지활동의 **경험량은 감소**했으나, **만족도는 증가**

* 만족도 : 일상형 ('19) 89.6% → ('20) 90.7% / 당일형 · 숙박형 ('19) 89.5% → ('20) 88.0% · 93.7%

□ **산림휴양·복지활동의 주요 동반자는 가족, 숙박형 활동 경비 전년 대비 1만 6천 원 상승한 17.2만 원 지출**

○ **일상형·당일형·숙박형** 모든 활동에서 **가족**과 **함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 처음 조사를 한 반려동물 동반 비율은 일상형 17.1%, 당일형 7.2%, 숙박형 2.4%로 조사되었다.

○ 또한 당일형 활동에 소비한 금액은 6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나, 숙박형 활동에 소비한 금액은 전년 대비 1만 6천 원 상승한 17.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 산림휴양・복지활동 동반자 및 소비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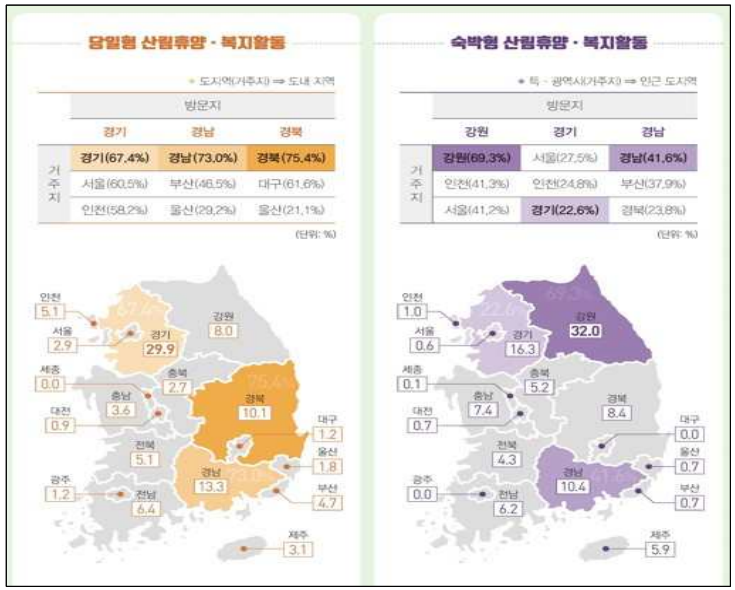
□ **산림휴양·복지활동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

○ **당일형** 활동은 **도 지역(거주지) → 도내 지역**으로의 이동 패턴을 보여 비교적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방문 비율이 높았고, 2019년 대비 **경기도** 방문율은 **상승**했지만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방문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 경기도 방문자 거주지 : 경기(67.4%) > 서울(60.5%) > 인천(58.2%)
* 경상남도 방문자 거주지 : 경상남도(73.0%) > 부산(46.5%) > 울산(29.2%)
* 경상북도 방문자 거주지 : 경상북도(75.4%) > 대구(61.6%) > 울산(21.1%)

○ **숙박형** 활동은 **특·광역시(거주지) → 인근 도지역**으로의 이동 패턴을 보여 특·광역시 인근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방문 비율이 높았고, 2019년 대비 **강원도와 경기도**의 방문률은 **상승**한 반면 **경상남도** 방문률은 다소 **감소**하였다.

* 강원도 방문자 거주지 : 강원(69.3%) > 인천(41.3%) > 서울(41.2%)
* 경기도 방문자 거주지 : 서울(27.5%) > 인천(24.8%) > 경기(22.6%)
* 경상남도 방문자 거주지 : 경상남도(41.6%) > 부산(37.9%) > 경상북도(23.8%)



< 산림휴양・복지활동 이동 현황 >

□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한 긍정 평가, 향후 더 많은 활동 희망**

○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한 경험률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응답자의 97.1%는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1년 이내에 **평균 4.6개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을 보여 산림휴양・복지활동에 적극적인 의향을 보였다.

* 향후 1년 이내 경험 의향 활동 : 자연풍경감상(53.7%)>하이킹(산책)(46.4%)>등산(42.8%)>야영(캠핑)(33.8%)>명소탐방(33.6%)

□ **자연휴양림과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인지율과 이용 의향률 높아**

○ 산림휴양·복지시설의 인지율과 이용 의향률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삼림욕장> 숲길> 숲속야영장> 치유의 숲> 정원 순서로 높았으나, 인지율에 비해 **이용 경험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림휴양·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 경험률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산림휴양·복지시설에 비해 **산림휴양·복지프로그램**의 **인지도 및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 산림휴양·복지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율 등 >

□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산림휴양·복지활동의 경험률과 경험량**이 전년보다 **줄어들고**, 방문지도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등 코로나 19가 산림휴양·복지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산림휴양·복지활동**의 경험률이 줄었음에도 **만족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 향후 산림휴양·복지활동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산림휴양·복지시설과 프로그램 인지율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보다 많은 국민이 고루 산림휴양·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s://forest.go.kr)에서 확인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파일 : 조사결과 요약자료
첨부파일 : 조사결과 인포그래픽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 **2020년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주요 결과 요약**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국민의 산림휴양·복지활동 이용목적 및 수요, 선택기준 등을 파악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수급을 예측하고 산림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와 학술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내용 및 방법

○ 조사 대상 및 조사 지역
- 조사대상 : 만 15세 이상 남녀 10,248명
- 조사지역 : 전국 17개 시·도

3. 조사 기간

○ 2021년 7월 5일 ~ 8월 27일

4. 조사 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조사 기관 및 법적 근거

○ 조사 기관
- 주관기관 : 산림청
- 수행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대행기관 : (주)메트릭스리서치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 통계(승인번호 제136037호)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Ⅱ. 주요 조사 결과

1) 산림휴양·복지활동 유형별 참여실태의 변화

(1)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 변화

◆ 2020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은 79.2%로 전년 대비 2.2%p하락함

▸ 산림휴양·복지활동 유형별로는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전년 대비 3.9%p 증가한 반면, 당일형 및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은 전년 대비 각각 5.3%p, 10.2%p 감소함

〈표1-1〉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			
		일상형	당일형	숙박형
2019	81.4	47.6	51.1	30.0
2020	79.2	51.5	45.8	19.8

◆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의 응답이 전년 대비 9.7%p 하락함

◆ 2020년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 하락 요인은 '코로나19'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사람이 많아 혼잡해서'의 응답이 전년 대비 8.6%p 증가
▸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해서'(13.8%)의 응답이 신규 발생

〈표1-2〉 산림휴양·복지활동 미경험 이유(1+2순위 %)

	흥미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바다 등 다른 여행지가 더 좋아서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해서[1)]	사람이 많아 혼잡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2019	53.9	57.3	23.0	16.1	-	5.1	6.8
2020	53.5	47.6	22.5	15.2	13.8	13.7	6.6

1) 기타 응답에서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해서'를 분류하여 추가함.

(2) 산림휴양·복지활동 종류별 경험 변화

◆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2019년과 동일하게 활동 종류는 '자연풍경 감상', '등산', '하이킹' 등의 순으로 동일하나 경험률이 전년 대비 하락함

▸ '자연풍경 감상'의 경험률이 가장 높으나 전년 대비 5.1%p 하락
▸ 반면, '트레킹'의 경험률은 전년 대비 1.0%p 증가

◆ 전반적으로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의 활동 패턴은 변화가 없으나 경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표1-3〉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종류별 경험률(%)

	자연풍경 감상	등산	하이킹 (산책)	소풍 (피크닉)	명소탐방	트레킹	산림욕
2019	22.5	17.7	16.4	9.2	9.7	5.7	3.2
2020	17.4	14.3	14.2	7.7	6.9	6.7	3.1

◆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2019년과 동일하게 활동 종류는 '자연풍경 감상', '야영' 등의 순으로 동일하나 경험률이 전년 대비 하락함

▸ '수상활동', '자연풍경 감상'의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3.9%p, 3.6%p 하락

◆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도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과 동일하게 활동 패턴은 변화가 없으나 경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표1-4〉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종류별 경험률(%)

	자연풍경 감상	야영 (캠핑)	명소탐방	수상활동	하이킹 (산책)	등산	트레킹
2019	10.4	8.8	5.5	6.9	1.3	2.2	1.6
2020	6.8	6.4	3.1	3.0	1.4	1.3	1.1

2) 산림휴양·복지활동 목적의 변화

◆ 2019년과 마찬가지로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주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목적이 '건강 증진'이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2.4%p 감소, '휴양 및 휴식'이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2.7%p 증가

〈표1-5〉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목적(%)

	건강 증진	휴양 및 휴식	취미 및 레포츠활동	친목 활동	질병 치유	교육, 학습
2019	72.3	20.7	4.3	1.6	0.8	0.2
2020	69.9	23.4	2.8	2.8	0.5	0.4

◆ 당일형 및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주로 '휴양 및 휴식'을 목적으로 활동

▸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목적이 '건강 증진'이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4.1%p 증가

〈표1-6〉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목적(%)

	휴양 및 휴식	건강 증진	친목 활동	취미 및 레포츠활동	교육, 학습	질병 치유
2019	60.1	19.3	9.6	7.2	3.5	0.2
2020	61.1	23.4	6.6	6.1	2.3	0.2

▸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이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2.6%p 증가

〈표1-7〉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목적(%)

	휴양 및 휴식	취미 및 레포츠활동	친목 활동	건강 증진	교육, 학습	질병 치유
2019	78.0	10.4	6.2	2.7	2.4	0.2
2020	80.6	8.8	5.8	2.8	1.6	0.3

3) 산림휴양·복지활동 행동 패턴의 변화

(1) 산림휴양·복지활동 시기 변화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2019년 대비 주말의 활동 비율이 감소,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2019년 대비 주말의 활동 비율이 증가

〈표1-8〉 산림휴양·복지활동 유형별 활동 시기(%)

	일상형			당일형			숙박형		
	주중	주말	공휴일(휴가 포함)	주중	주말	공휴일(휴가 포함)	주중	주말	공휴일(휴가 포함)
2019	45.3	52.6	2.1	11.3	82.7	5.9	5.9	67.2	26.9
2020	50.7	46.7	2.6	9.6	84.6	5.8	5.1	76.2	18.7

◆ 전반적으로 당일형 및 숙박형은 산림휴양·복지활동 시기는 2019년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

▸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10월'의 활동 비율이 2.8%p 감소
▸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8월'의 활동 비율이 2.7%p 감소

〈표1-9〉 산림휴양·복지활동 유형별 활동 시기(%)

	당일형		숙박형	
	2019	2020	2019	2020
1월	0.4	0.7	0.2	0.3
2월	1.5	1.5	0.5	0.6
3월	7.6	8.6	3.1	3.4
4월	12.9	13.2	5.8	7.4
5월	21.1	20.1	12.0	13.1
6월	7.5	8.5	6.5	7.3
7월	6.3	6.5	14.4	15.1
8월	5.8	6.4	24.5	21.8
9월	8.8	9.2	9.2	7.6
10월	21.2	18.4	17.4	17.3
11월	5.7	5.3	5.0	4.5
12월	1.1	1.6	1.6	1.6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전년 대비 활동 증가, 당일형 및 숙박형 산림휴양·복지 활동은 2019년과 유사한 패턴으로 활동 유지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의 월평균 활동 횟수가 전년 대비 1.0회 증가

〈표1-10〉 산림휴양·복지활동 유형별 활동 횟수(회)

	일상형(월평균 기준)	당일형(연평균 기준)	숙박형(연평균 기준)
2019	7.9	3.3	1.8
2020	8.9	3.0	1.8

(2) 산림휴양·복지활동 방문 지역의 변화

◆ 2019년과 마찬가지로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해 경기, 경남, 경북 등의 지역을,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해 강원, 경기, 경남 등의 지역을 주로 방문함

-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해 '경기' 지역에 방문한 비율은 전년 대비 7.2%p 증가, '경남' 지역에 방문한 비율은 전년 대비 4.9%p 감소
-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해 '강원' 지역에 방문한 비율은 전년 대비 5.9%p 증가, '경남' 지역에 방문한 비율은 전년 대비 4.8%p 감소

<표1-11> 당일형 및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방문지역(3순위, %)

당일형	2019	2020
경기	22.7	29.9
경남	18.2	13.3
경북	10.6	10.1

숙박형	2019	2020
강원	26.1	32.0
경기	15.6	16.3
경남	15.2	10.4

(3) 산림휴양·복지활동 동행인 및 소비금액의 변화

◆ 모든 산림휴양·복지활동 유형에서 '가족'과 함께 산림휴양·복지활동을 경험한 비율이 2019년 대비 증가함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시 '가족'과 함께한 비율이 전년 대비 1.7%p 증가, '혼자' 경험한 비율은 전년 대비 3.7%p 증가, 반면 '친구/연인'과 함께 경험한 비율은 전년 대비 4.6%p 감소

<표1-12>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동행 유형(%)

	가족	혼자	친구/연인	(직장)동료	친목단체/모임	친척
2019	42.8	35.4	19.7	0.9	-	0.3
2020	44.5	39.1	15.1	0.5	0.4	0.2

-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시 '가족'과 함께 경험한 비율은 전년 대비 6.4%p 증가, '친목단체/모임'으로 경험한 비율은 전년 대비 5.6%p 감소

<표1-13>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동행 유형(%)

	가족	친구/연인	혼자	친목단체/모임	(직장)동료	친척	학교단체
2019	50.0	31.9	4.3	8.7	2.6	1.2	1.2
2020	56.4	32.5	5.5	3.1	1.5	0.7	0.2

-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시 '가족'과 함께 경험한 비율은 전년 대비 1.9%p 증가, '친구/연인'과 함께 경험한 비율은 전년 대비 2.0%p 증가
- '학교단체'로 경험한 비율은 전년 대비 1.7%p 감소

<표1-14>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동행 유형(%)

	가족	친구/연인	친목단체/모임	혼자	(직장)동료	친척	학교단체
2019	62.7	27.1	3.4	0.9	2.0	2.1	1.8
2020	64.6	29.1	2.1	1.6	1.6	0.9	0.1

◆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소비금액은 전년 대비 1.6만원 증가, 당일형 숙박형 2019년과 비슷한 수준

<표1-15> 산림휴양·복지활동 유형별 1인 평균 소비금액(1회 기준, 만원)

	당일형	숙박형
2019	6.0	15.6
2020	6.0	17.2

(4) 산림휴양·복지활동 향후 이용의향률

◆ 향후 '하이킹', '산책', '야영' 등의 당일형 및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률이 2019년 대비 증가

- '하이킹'의 향후 이용의향률은 전년 대비 5.1%p 증가, '야영'의 향후 이용의향률은 2.4%p 증가, '소풍'의 향후 이용의향률은 2.1%p 증가
- '자연풍경 감상'의 향후 이용의향률은 전년 대비 3.2%p 감소, '명소탐방'은 3.7%p 감소

<표1-16> 당일형 및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향후 이용의향률(%)

	자연풍경감상	하이킹(산책)	등산	야영(캠핑)	명소탐방	산림욕	소풍(피크닉)
2019	56.9	41.3	43.9	31.4	37.3	26.6	23.4
2020	53.7	46.4	42.8	33.8	33.6	27.1	25.5